

참되고 지혜롭게

2023년 8월 31일

📍 P.O. Box 11701 Kampala Uganda

✉ 이동해_salt dh@gmail.com
김은희_saltkeh@gmail.com

🗨 이동해_salt dh
김은희_saltkeh

☎ 이동해_+256(0)774-605808
김은희_+256(0)784-239806

💡 후원금 관리_서현교회 권정선 자매
(010-5348-2824)



8월의 마지막날, 한국에서 동역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5일 둘째 강현이와 함께 한국에 귀국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한국의 폭염을 온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우간다에서 한국으로 선교의 현장을 옮긴 8월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8월 두 번째 학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치렀습니다. 매 학기마다 시험을 통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아이들이 사뭇 진지합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공통점인가 봅니다. 방학을 하기 일주일 전에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고, 다음 학기가 시작한 후에 귀임해야 하는 일정이라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구입하고, 교과서도 미리 프린트하고, 월급도 미리 정리해서 지급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 출국하기 전날까지 일을 하게 되더군요.

한국방문에 앞서 장인께서(김은희 선교사 아버지) 노환과 고혈당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코로나까지 감염되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감사하게도 회복되어 저희가 도착하고 일주일 후에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누워만 계시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말로만 들던 폭염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간다가 더 덥고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간다는 뜨겁기는 하지만 습하지 않아서 한국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계절이 변하고 온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한국!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저희 둘째 강현이의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올해 5월에 대학을 졸업한 강현이는 한국에서 군대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현이의 양쪽 시력이 편차가 심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봉사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물러야 하는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5살에 한국을 떠나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리해 주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막상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강현이에게는 한국이 모국이지만 다른 나라처럼 낯설고 힘든 문화 충격 중에 있습니다. 강현이는 현재 등록된 거주지인 서울 용답동 할머니 집에 머물 예정입니다. 세 들었던 방을 하나 빼내고 오래된 건물이기에 강현이가 혼자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9월 첫 주에 입주할 예정이고, 병무청에서 근무 할 곳을 지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근무지가 결정되지 않아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청년들의 요청으로 zoom을 통해 6월부터 비대면으로 시작한 성경공부가 마침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침 9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내는 곳은 달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며 성경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바뀐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한국 청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12주를 모두 마친 미국에서는 함께 모여 종강파티를 했습니다. ♡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11일에 다시 우간다로 돌아갑니다.** 짧은 일정이기에 여러분 모두를 만나뵙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뵙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용서하시고 공식적인 안식년의 시간으로 다시 나올 때 반갑게 뵙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시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연로해져 가시는 부모님을 뵈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더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으로 가득한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한국에 있는 동안 강현이의 거처를 잘 마련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여건을 잘 마련해 주도록.
2. 강현이가 사회봉사요원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길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배치가 되어 근무를 시작하도록.
3. 낯설기만 한 강현이의 한국 생활을 인도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4.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한국에 있는 동안 잘 섬기고, 부모님들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5. 우간다에 두고 온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없어도 사역이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6. 강현이의 벨기에 학회와 비자 갱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비자를 위한 한국 방문(3주)의 시간 동안 알차게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도록.